

# 60대와 20대 남성의 하반신 체형에 대한 인식 연구

## Study on the Perception of Somatotype for Men's Lower Body in the 60s and the 20s

이영주 · 김현진

경성대학교 의상학과 · 대구가톨릭대학교 의류학과

Lee, Young Ju · Kim, Hyun Jin

Dept. of Fashion Design & Merchandising, Kyung Sung University

Dept. of Fashion Industry, Catholic University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perception of men's lower body shape in the 60s with that in the 20s. On hundred and seven men in the 60s and 178 men in the 20s participated in the survey and measuremen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It was perceived that men in the 60s had broader girth but lighter weight than men in the 20s. The research revealed that men in the 60s was more satisfied with their lower body shape than men in the 20s. 2. It was also found that the ideal size of men in the 60s was broader in the girth of their waist and hip, shorter in their height, and lighter in their weight compared to men in the 20s. 3. It showed a difference in the satisfaction with their body shape between men in the 60s and the 20s. The satisfaction with their lower body shape of men in the 60s was more affected by their perception than by their real measured size. On the other hand, the satisfaction of men in the 20s was affected by their perception as much as by their measured size. 4. If we look at the perception and satisfaction in relation with their body types, we found that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girth of their waist, abdomen, hip, and weight depending on their body types. And men in the 20s showed greater differences in their perception and satisfaction depending on their body types, compared to men in the 60s. 5. The measured size of men in the 20s had greater differences depending on their body types than that of men in the 60s. On the contrary, the ideal size of men in the 60s had greater differences than that of men in the 20s.

**Key words:** perception, satisfaction, measured size, ideal size

### I. 서론

시대의 변화는 인간의 사고와 미의식의 변화를 가져오며 이것은 제 2의 피부라고 할 만큼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복식에서의 변화를 요구한다. 복식에 대한 미의식은 인체라는 자연미를 지닌 대상으로부터 출발되므로 형식면에서 볼 때 복식의 조형은 인체의 형태를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 질 수밖에 없으며 내용 면에서도 복식은 한 문화, 시대의 인체에 대한 의식을 표출하고 있다(김윤희 · 김민자, 1998). 그러므로 현재의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복식을 디자인, 제작, 마케팅을 할 때는

---

Corresponding author : Young-Ju Lee  
Tell : 051) 620-4667 Fax : 051) 6123-5248  
E-mail : Young99@star.kyung Sung.ac.kr

타깃으로 하는 각 연령대의 신체적 특징이나 그들이 미적으로 생각하는 이상적인 신체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Donty와 Brannon(1984), Lennon(1988)의 연구에서는 남녀 모두 매력적이고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여성은 마른 체형이라고 하였다. 박우미(1993, 1999), 이영주(1997, 2000), 정재은(1993, 1999) 등은 20대 여성들은 키가 크고 몸무게가 가벼우며 둘레가 가는 것에 만족하며 야윈 체형을 더 매력적으로 평가한다고 하였으며, Davis(1985)는 여성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은 본인의 체형이 사회적으로 인지되는 이상적인 신체상과 차이가 많을수록 커진다고 하였다.

여성과는 달리 유행에 민감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던 남성복은 기성복화가 가속화되고 남녀의 역할이 변화되어감에 따라 남성들도 복식을 통한 미의식 표현에 적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정재은 & 이순원(1998)의 연구에서는 20대 남성들은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가 작고 키와 가슴둘레는 큰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정원 & 윤종희(1999)의 연구에 의하면 20대 남자 대학생이 여대생에 비해 신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남성들의 체형과 현대의 남성들이 추구하는 신체에 대한 인식 연구를 통해 신체적, 정신적 착용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남성복 제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연령대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들의 체형과 체형에 대한 인식 연구에 비해 남성들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노년 전기에 해당하는 60대의 경우 과거 자식들에게 의지하여 소비력이 약했던 것과는 달리 정년퇴직이나 연금제도에 의해 70대와 80대에 비해 경제적 여유가 있는 소비계층임에도 불구하고 60대를 분리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60대 남성의 신체에 대한 인식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자신의 개성표현과 외모에 관심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20대 남성과 경제적 여유를 가졌지만 외모에 대한 관심이 20대에 비해 떨어질 것으로 생각되는 60대 남성의 하반신 체형에 대한 인식도와 만족도를 비교해 봄으로써 연령에 따른 차별화된 슬랙스

패턴설계와 디자인 연구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및 절차

### 1. 연구대상

부산시내에 거주하는 60대 남자 120명, 20대 남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와 직접계측을 동시에 실시하였다. 설문에 대한 응답과 계측치수가 빠진 것을 제외한 60대 남자 107명, 20대 남자 178명의 데이터를 통계처리 하였다.

### 2. 측정도구

#### 1) 인식도와 만족도

인식도와 만족도는 선행연구(남윤자, 유희숙, 1996; 이영주, 1997, 2000, 정재은, 1993, 1999)와 예비조사를 통해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위로 나타난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 대퇴둘레, 발목둘레, 다리길이, 키, 몸무게의 8항목으로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인식도와 만족도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인식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굵고, 길고, 크고, 무겁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만족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부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하였다.

#### 2) 계측치수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 대퇴둘레, 발목둘레, 다리길이, 키, 몸무게의 8항목을 숙모만 착용한 상태에서 직접계측 하였다.

#### 3) 이상치수

피험자들이 각 부위의 치수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므로 계측치수를 알려준 뒤 각 부위별로 자신이 원하는 이상치수를 적도록 하였다.

#### 4) 체형

본 연구에서는 1997년 국민표준체위조사보고서

를 기준으로 신체충실지수에 의해 신체충실지수 120이하를 허약, 120-150을 정상, 150이상을 비만으로 분류하였다.

### 3. 연구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60대와 20대 남성의 하반신에 체형에 대한 인식도와 만족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둘째, 60대와 20대 남성의 계측치수와 이상치수를 비교 분석하였다.

세째, 60대와 20대 남성의 체형에 따른 하반신 체형에 대한 인식도와 만족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네째, 60대와 20대 남성의 체형에 따른 계측치수와 이상치수를 비교 분석하였다.

### 4. 자료분석

SPSS/win 10.0을 사용하여 60대와 20대 남성의 차이검증은 T-test, 인식도와 만족도, 인식도와 계측치수간의 관계는 Pearson의 상관계수, 체형간의 차이검증은 F-test와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 III. 결과 및 고찰

### 1. 60대와 20대 남성의 하반신에 대한 인식도와 만족도

60대와 20대 남성의 하반신에 대한 인식도와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인식도에서는 허리둘레, 배둘레, 발목둘레, 몸무게에서 60대와 20대 남성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모두 60대 남성에 비해 20대 남성이 둘레는 가늘고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엉덩이둘레, 대퇴둘레, 발목둘레, 다리길이, 키에 대한 인식도에서는 두 연령대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60대 남성들은 둘레에 대해서는 대체로 보통 보다 굵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대 남성들은 엉덩이둘레, 대퇴둘레를 허리둘레, 발목둘레에 비해 굵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에서는 대퇴둘레, 발목둘레, 다리길이, 키, 몸무게에서 60대와 20대 남성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모든 항목에서 60대가 20대에 비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20대 남성이 60대 남성에 비해 가늘고 가볍게 하반신을 인식하고 있으나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영주(1997)의

표 1. 60대와 20대의 하반신에 대한 인식도와 만족도

부위	인식도				T 값	만족도				T 값
	60대(107)		20대(178)			60대(107)		20대(178)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허리둘레	3.38	0.61	2.99	1.70	2.31*	3.06	0.87	2.90	0.97	1.38
배둘레	3.37	0.61	3.03	0.95	3.36**	2.98	0.91	2.77	1.05	1.27
엉덩이둘레	3.25	0.53	3.12	0.92	1.38	3.11	0.86	2.97	1.07	1.32
대퇴둘레	3.04	0.36	3.13	1.03	-0.94	3.36	0.59	2.84	1.05	4.53***
발목둘레	3.01	0.22	2.67	0.89	3.81***	3.40	0.53	3.10	0.94	3.03**
다리길이	2.79	0.61	2.84	0.79	-0.07	3.20	0.75	2.75	1.14	3.63***
키	3.04	0.53	2.79	0.98	1.39	3.14	0.83	2.54	1.25	4.41***
몸무게	3.07	0.53	2.89	0.98	4.00***	3.24	0.72	2.71	1.09	4.51***

\* p<0.05    \*\* p<0.01    \*\*\*p<0.001

20대 여자의 대퇴둘레, 발목둘레, 다리길이, 키의 만족도가 1.71, 2.55, 2.47, 2.11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하면 20대 남성의 하반신 각 부위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20대의 남성은 발목둘레를 제외한 모든 부위의 만족도가 보통 보다 조금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60대 남성은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에서 거의 비슷한 인식도를 보였으나 배둘레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모든 부위에서의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이것은 60대 남성의 경우, 신체의 만족여부가 외관의 아름다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20대 남,여와는 달리 복부 비만이 건강과 관련이 있으므로 건강적인 요인이 외관적 요인과 함께 배둘레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 2. 60대와 20대 남성의 계측치수

60대와 20대 남성의 계측치수를 비교해 본 결과 <표 2>, 엉덩이둘레와 체중을 제외하고는 허리둘레, 배둘레, 대퇴둘레, 발목둘레, 다리길이, 키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허리둘레는 20대 남성이 60대에 비해 11.94cm, 배둘레는 11.71cm, 발목둘레는 2.47cm가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대 남성이 60대 남성에 비해 다리길이는 5.71cm 더 길고 키는 7.05cm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퇴둘레는 60대 남성이 20대 남성에 비해 6.2cm

가늘게 나타났으며, 엉덩이둘레와 체중에는 두 연령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의 하반신의 형태를 보면, 20대 남성에 비해 엉덩이둘레가 배둘레와의 차이가 적으나 대퇴둘레가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에 비해 급격하게 줄어드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60대나 20대 남성의 슬랙스 제작시 연령에 따른 체형변화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며, 특히 60대 남성의 경우 허리, 배, 엉덩이에 비해 갑자기 가늘어지는 대퇴둘레의 형태적 보완을 위해 슬랙스의 주름양, 슬랙스 폭, 슬랙스의 전체적 실루엣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보다 아름답고 편안한 슬랙스 제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3. 60대와 20대 남성의 하반신 부위에 대한 이상치수

60대와 20대 남성의 허리둘레, 키, 몸무게에 대한 이상치수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60대 남성의 이상치수는 허리둘레는 9.97cm, 엉덩이둘레는 1.63cm가 20대에 비해 더 컸으며, 키는 12.69cm, 몸무게는 5.68kg 더 작으므로 나타났다.

60대와 20대 남성의 계측치수와 이상치수를 비교해 보면 60대 남성은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키에서 계측치수와 이상치수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는 가늘어지기를

표 2. 60대와 20대 남성의 계측치수

부위	60대		20대		T값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허리둘레	88.22	6.90	76.28	6.21	15.07***
배둘레	90.19	7.07	78.48	7.07	13.61***
엉덩이둘레	93.36	5.60	93.41	5.86	-0.18
대퇴둘레	48.10	5.54	54.30	4.59	-10.26***
발목둘레	24.65	3.36	22.18	1.63	11.10***
다리길이	96.15	4.39	101.86	4.38	-10.63***
키	165.33	5.39	172.38	5.54	-10.50***
체중(kg)	65.00	7.45	66.78	9.74	-1.58

\*\*\*p<0.001

표 3. 60대와 20대 남성의 하반신 부위의 이상치수

단위 : cm

부위	60대		T값	20대		T값	60대와 20대 이상치수의 T값
	계측치수	이상치수		계측치수	이상치수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허리둘레	88.22	86.25	5.83***	76.28	76.57	-1.65	15.16***
엉덩이둘레	93.36	91.78	4.86***	93.41	92.09	3.36**	1.56
키	165.33	166.33	-3.78***	172.38	179.02	-19.66***	-24.04***
몸무게(kg)	65.00	65.01	-0.81	66.78	70.69	-6.32***	-7.17***

\*\*p&lt;0.01, \*\*\*p&lt;0.001

원하고 있으며 키는 조금 커지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몸무게에서는 계측치수와 이상치수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남성은 허리둘레는 실제 계측치수 보다 이상치수가 1.97cm, 엉덩이둘레는 1.58cm, 더 작기를 원했으며, 키는 1cm 더 크기를 원했다. 몸무게는 0.01kg 더 나가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계측치수와 이상치수간에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남성의 경우 엉덩이둘레, 키, 몸무게에서 계측치수와 이상치수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허리둘레는 0.29cm, 엉덩이둘레는 1.32cm, 더 작기를 위해 60대 남성에 비해 계측치수와 이상치수간에 차이가 적었다. 그러나 키는 6.64cm, 몸무게는 3.91kg 더 크고 더나가기 위해 20대 남성이 60대 남성 보다 이상치수와 계측치수간에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것은 정재은, 남윤자(1999)의 20대 여성의 경우 허리둘레 2.24cm, 엉덩이둘레는 3.78cm가 계측치수 보다 가늘고 키는 6.53cm 더 크고 몸무게 2.78kg이 더 작게 나가기를 바란 결과와 큰 차이를 보였다. 둘레항목에서는 계측치수와 이상치수간에 차이가 남성 보다 크게 나타났고 특히 여성들이 실제 자신의 몸무게 보다 작게 나가기를 바라는 것과는 달리 남성들은 실제 자신의 몸무게 보다 더 나가기를 위해 여성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체형과 남성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체형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남성들은 신체적인 밸런스를 무시한 무조건적으로 마르기만을 원하는 여성들에 비해 자신의 신체조건을 고려하여 이상체형을 설정하며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형태도 아주 마른 형태보다는 근육이 발달한 균형잡힌 남성스러운 몸매를 선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60대 남성의 슬랙스 설계 시 길이 적인 보완보다는 허리둘레, 엉덩이둘레를 가늘게 보이게 하고 20대 남성의 경우는 키가 커 보이게 하는 디자인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4. 60대와 20대 남성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와 인식도, 만족도와 계측치간의 상관관계

60대 남성의 하반신의 만족도는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 대퇴둘레, 발목둘레는 인식도와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여 둘레를 가늘게 인식할 수록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리길이와 키에 대한 만족도는 인식도와 계측치와 모두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여 다리길이가 길고 키가 크다고 인식할 수록 다리길이와 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

몸무게의 만족도는 인식도와는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계측치수와 유의한 정적인 상관을 보여 몸무게에 대한 인식도 보다는 실제 계측치수가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이영주(1999, 2000, 2002)의 결과와 일치한다.

60대 남성의 경우는 신체에 대한 만족 여부가 계측치수 보다는 인식도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대 남성의 경우는 하반신에 대한 만족도에 인식도와 계측치수가 거의 유사

표 4. 60대와 20대 남자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와 인식도, 만족도와 계측치 간의 상관관계

부위	만족도와 인식도의 상관		만족도와 계측치의 상관	
	60대	20대	60대	20대
허리둘레	-0.53**	-0.13	-0.15	-0.30**
배둘레	-0.50**	-0.48**	-0.04	-0.43**
엉덩이둘레	-0.45**	-0.27**	-0.18	-0.26**
대퇴둘레	-0.25*	0.01	-0.10	-0.08
발목둘레	0.22*	0.17	0.10	-0.02
다리길이	0.41**	0.69**	0.24*	0.44**
키	0.52**	0.68**	0.41**	-0.03
몸무게	0.14	-0.11	0.28**	0.63***

\* p&lt;0.05 \*\* p&lt;0.01 \*\*\*p&lt;0.001

한 상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별 차이를 보였다.

20대 남성은 허리둘레의 만족도는 계측치수와 유의한 부적인 상관관을 보여 실제 허리둘레 치수가 가는 20대 남성이 허리둘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배둘레, 엉덩이둘레의 만족도는 인식도와 계측치가 거의 비슷한 유의한 부적 상관관을 보여 배둘레, 엉덩이둘레에 대해 가늘게 인식하고 실제 계측치도 가는 20대 남성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리길이의 만족도는 인식도와 계측치 모두에서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을 보였고 키에 대한 만족도는 인식도와 정적인 상관관, 몸무게는 계측치와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을 보였다. 60대와 20대의 몸무게에 대한 만족도는 몸무게에 대한 인식도 보다 계측치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다른 부위에 비해 몸무게는 계측할 경우가 많아 거의 대부분이 자신의 치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자신의 키와 연령에 따른 평균 몸무게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만족여부에 계측치가 상관관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여성들에게서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비정상적으로 마른 신체를 선호하는 신체왜곡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키와 연령에 따른 남녀의 건강한 평균적 체형을 제시하고 각 신체부위에 대한 치수를 제시해 자신의 실제치수와 비교 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5. 60대와 20대 남성의 체형별 허반신에 대한 만족도와 인식도

60대 남성의 체형을 신체총실지수에 의해 분류한 결과 <표 5>, 4명(3.7%)이 야원형, 59명(55.2%)이 정상형, 44명(41.1%)가 비만형으로 분류되어 야원형은 거의 없으며 정상체형과 비만체형이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20대 남성은 야원형이 47명(26.4%), 정상형 115명(64.6%), 비만형이 16명(9%)으로 정상체형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그 다음이 야원체형으로 나타나 연령별로 체형 분포에 큰 차이를 보였다.

60대 남성은 체형에 따라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 몸무게의 인식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비만형이 가장 굵고 무겁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야원형은 다른 체형에 비해 가늘고 가볍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만족도에서는 인식도와 같이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에서 체형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는 야원형과 정상형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배둘레는 정상형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야원형과 비만형의 만족도는 정상형에 비해 낮게 나타나 배둘레는 지나치게 가늘거나 굵은 것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20대 남성의 허반신에 대한 체형별 인식도는 허

표 5. 60대 남자의 하반신에 대한 체형별 만족도와 인식도

부위	야원형 (n=47, 26.4%)		정상형 (n=115, 64.6%)		비만형 (n=16, 9.0%)		F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인식도	허리둘레	b 2.47	0.80	b 3.03	0.67	a 4.25	0.68	7.12**
	배둘레	c 2.15	0.81	b 3.22	0.72	a 4.25	0.68	58.32***
	엉덩이둘레	c 2.36	0.82	b 3.28	0.74	a 4.19	0.66	41.96***
	대퇴둘레	c 2.28	0.80	b 3.32	0.89	a 4.31	0.70	41.60***
	발목둘레	c 2.15	0.78	b 2.78	0.82	a 3.44	0.89	17.61***
	다리길이	3.06	0.73	2.76	0.81	2.75	0.68	2.68
	키	2.79	0.75	2.81	1.07	2.69	0.95	0.11
	몸무게	c 1.85	0.62	b 3.13	0.73	a 4.25	0.58	90.58***
만족도	허리둘레	a 2.77	0.79	a 3.09	0.99	b 1.94	0.68	11.76***
	배둘레	a 3.04	0.86	a 2.81	1.08	b 1.69	0.60	11.33***
	엉덩이둘레	a 3.09	0.90	a 3.05	1.10	b 2.00	0.82	7.77***
	대퇴둘레	2.72	1.06	2.95	1.02	2.44	1.15	2.10
	발목둘레	2.83	0.99	3.22	0.92	3.00	0.82	3.01
	다리길이	a 3.06	1.22	b 2.69	1.12	b 2.25	0.77	3.60*
	키	2.72	1.08	2.48	1.31	2.44	1.41	0.70
	몸무게	b 2.23	0.89	a 2.99	1.07	b 2.06	1.06	12.56***

\* p&lt;0.05 \*\* p&lt;0.01 \*\*\*p&lt;0.001

Duncan test 결과 p&lt;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집단들은 평균값의 크기를 알파벳순으로 나타내었다. a&gt;b&gt;c

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 대퇴둘레, 발목둘레, 몸무게에서 체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허리둘레를 제외한 배둘레, 엉덩이둘레, 대퇴둘레, 발목둘레, 몸무게에서 비만형이 가장 굵고 무겁게

인식하고 야원형이 가장 가늘고 가볍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형에 따라 인식도의 차이가 많이 나타났다.

만족도는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 다리길

표 6. 20대의 하반신에 대한 체형별 인식도와 만족도

부위	야원형		정상형		비만형		F값		
	계측치	이상치	계측치	이상치	계측치	이상치	계측치	이상치	
60대	허리둘레	c 79.25	b 80.50	b 86.14	ab 84.84	a 91.78	a 88.71	15.16***	8.34***
	엉덩이둘레	b 90.00	b 87.36	ab 91.98	ab 91.25	a 95.96	a 93.08	8.12***	3.34*
	키	a 172.50	a 172.50	b 165.92	b 167.17	b 163.89	b 164.64	5.97**	7.08***
	몸무게(kg)	b 57.25	b 60.50	b 62.27	b 62.87	a 69.49	a 68.86	19.16***	13.79***
20대	허리둘레	c 71.23	b 75.72	b 76.66	b 76.54	a 88.33	a 79.31	94.26***	3.51*
	엉덩이둘레	c 89.27	90.41	a 94.18	92.57	b 91.29	95.53	30.39***	1.40
	키	a 173.18	179.33	a 172.49	179.18	b 169.21	176.94	3.20*	2.66
	몸무게(kg)	c 59.13	b 70.30	b 67.95	b 70.30	a 80.78	a 74.66	49.22***	4.13*

\* p&lt;0.05 \*\* p&lt;0.01 \*\*\*p&lt;0.001

Duncan test 결과 p&lt;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집단들은 평균값의 크기를 알파벳순으로 나타내었다. a&gt;b&gt;c

이, 몸무게에서 체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는 야원형과 정상형의 만족도가 높았고 다리길이는 야원형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몸무게는 정상형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같은 결과는 이영주(2000)의 여고생을 대상으로한 체형별 하반신의 만족도 결과와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여고생은 야원형이 하반신 각 부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60대와 20대 남성의 체형별 인식도와 만족도를 비교해 보면 두 연령대 모두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 몸무게에서 체형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인식도와 만족도 모두 20대 남성이 60대 남성에 비해 체형별 차이가 크게 나는 경향을 보였다.

## 6. 60대와 20대 남성의 체형별 계측치수와 이상치수

60대와 20대 남성의 체형별 계측치수와 이상치수를 비교해 보면 <표 7>, 60대의 경우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키, 몸무게에서 체형에 따라 계측치와 이상치수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계측치수에서 보면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몸무게는 비만형이 가장 굵었으며 키는 야원형이 가장 크고 비만형은 가장 작게 나타났다. 이상치수는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몸무게에서 비만형이 가장 굵고 무겁게 나타났고, 키는 가장 작게 나타났다. 이것은 60대 남자의 경우 이상치수를 자신의 현재 체형을 고려하여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표 7. 60대와 20대의 체형별 계측치수와 이상치수

단위 : cm

부위	야원형 (n=4, 3.7%)		정상형 (n=59, 55.2%)		비만형 (n=44, 41.1%)		F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인식도	허리둘레	b 3.00	0.00	ab3.20	0.52	a 3.66	0.64	9.09***
	배둘레	b 2.50	0.58	a 3.22	0.49	a 3.66	0.61	13.45***
	엉덩이둘레	b 3.00	0.00	ab3.12	0.38	a 3.45	0.66	5.97***
	대퇴둘레	3.00	0.00	2.97	0.26	2.97	0.46	2.92
	발목둘레	3.00	0.00	2.98	0.13	2.98	0.30	1.05
	다리길이	3.00	0.00	2.98	0.13	2.97	0.26	2.94
	키	3.00	0.00	3.00	0.42	2.78	0.68	0.34
	몸무게	b 2.25	0.50	a 2.90	0.44	a 3.30	0.59	12.48***
만족도	허리둘레	a 3.25	0.96	a 3.25	0.76	b 2.77	0.94	4.24*
	배둘레	b 2.75	0.96	a 3.20	0.76	b 2.70	1.02	4.15*
	엉덩이둘레	a 3.25	0.50	a 3.39	0.62	b 2.73	1.02	8.58***
	대퇴둘레	3.25	0.50	3.45	0.57	3.25	0.61	1.50
	발목둘레	3.25	0.50	3.46	0.54	3.33	0.52	0.93
	다리길이	3.25	0.50	3.28	0.70	3.09	0.83	0.77
	키	3.25	0.50	3.21	0.79	3.05	0.91	0.50
	몸무게	b 2.50	1.00	a 3.32	0.68	a 3.20	0.73	2.59*

\* p<0.05 \*\* p<0.01 \*\*\*p<0.001

Duncan test 결과 p<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집단들은 평균값의 크기를 알파벳순으로 나타내었다. a>b>c



20대 남자의 경우 계측치수는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키, 몸무게에서 체형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나 이상치수는 허리둘레, 몸무게에서만 체형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계측치수는 비만체형이 가장 굵고 무거웠으며 야원형이 가장 가늘고 가벼웠다. 그러나 키는 야원형과 정상형이 비슷하게 크고 비만형이 가장 작게 나타났다. 이상치수는 60대 남자와 같이 비만형이 가장 굵고 무겁게 나타났다.

60대와 20대 남성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계측치수는 20대 남성이 체형에 따라 차이가 컸으며 이상치수는 오히려 60대가 체형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 IV. 결론

60대와 20대 남성의 하반신에 대한 인식을 비교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60대 남성은 20대 남성에 비해 들레는 굵고 몸무게는 작게 나가는 것으로 인식했으나 다리길이, 몸무게의 인식도에는 두 연령대에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만족도는 60대가 20대 남성에 비해 하반신 부위에 대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2. 하반신의 계측치수는 두 연령대 간에 큰 차이를 보였는데, 20대가 60대 남성에 비해 대퇴둘레를 제외한 들레항목에서 가늘었고 다리길이와 키는 더 길고 컸다. 그러나 대퇴둘레는 60대 남성이 더 가늘었다.
3. 60대 남성의 이상치수는 20대 남성에 비해 허리둘레와 엉덩이 둘레는 더 굵었으며 키와 몸무게는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4. 60대 남성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는 계측치수보다 자신의 인식도에 더 큰 영향을 받으나, 20대 남성의 경우 신체의 만족도에 인식도와 계측치수가 비슷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별 차이를 보였으며, 몸무게에 대한 만족도는 60대와 20대 남성 모두 인식도보다는 계측치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5. 60대 남성은 정상체형과 비만체형의 분포가 높게 나타났고, 20대 남성은 정상체형이 가장 높은 분포를 다음이 야원형의 분포가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60대와 20대의 체형별 인식도와 만족도를 비교해보면 두 연령대 모두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 둘레, 몸무게에서 체형별로 차이를 보였으며 인식도와 만족도는 모두 20대 남성이 60대 남성에 비해 체형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는 경향을 보였다.
6. 20대 남성의 계측치수는 60대 남성에 비해 체형별로 차이가 컸으나 이상치수는 60대 남성이 체형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60대 남성은 자신의 현재 하반신 부위에 대한 인식도와 만족도는 보통보다 조금 굵게 인식하였으며 만족도도 보통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60대 남성에 비해 20대 남성이 하반신을 대체로 가늘게 인식했으나 만족도는 더 낮게 나타나 두 연령대간에 하반신에 대한 인식도에는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두 연령대 모두 마른 형태를 선호하는 여성들에 비해 평균체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복 디자인 시 지나치게 마르게 하는 것보다 남성적인 신체를 부각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인식도, 60대와 20대, 만족도, 계측치수, 이상치수

#### 참고문헌

- 김윤희·김민자(1998). 인체의 추상형 / 사실형 개념에 따른 인체와 복식에 미의식 연구. 복식 41, 5-21.
- 김정원·윤종희(1999). 나체상태와 외모관리 후의 신체만족도 차이: 20대 남녀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2), 127-136.
- 김희영(1998). 노년남성의 의복착용실태조사. 한국의류학회지, 22(2), 192-202.
- 남윤자·유희숙(1996). 노인계층의 의복착용실태에 관한 연구 I. 한국의류학회지, 20(6), 962-974.

- 박우미(1993). 우리나라 여성의 신체에 대한 의식구조 -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1(1), 163-180.
- 박우미(1999). 신체만족도에 따른 선호의복스타일에 대한 한국과 미국 여대생의 비교. 복식, 48, 25-36.
- 박재경 · 이정임 · 남윤자 · 주소영(2002). 노년 여성의 신체만족도에 관한 연구-연령 및 비만도에 따른 신체만족도를 중심으로 -. 한국의류학회지, 26(8), 1186-1195.
- 서미아 · 이선희(2002). 노년기 남성의 의복디자인 선호도 및 치수적합도에 대한 만족도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8(6), 78-80.
- 이순명(1993). 의복구성을 위한 노년기 남성의 체형 연구 (I). 한양여자전문대학 논문집, 제16집.
- 이순명(1996). 의복구성을 위한 노년기 남성의 체형 연구(II). 한양여자전문대학 논문집, 제19집.
- 이영주 · 박옥련 · 이정옥(1997). 슬랙스 제작을 위한 20대 여성의 하반신 형태에 대한 인식도 및 체형분석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2), 368-382.
- 이영주(2000). 여고생의 하반신 형태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9(5), 205-213.
- 이영주(2002). 남자 대학생들의 하반신 형태에 대한 인식도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1(1), 59-67.
- 정재은(1993). 20대 여성의 실제체형과 이상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재은 · 남윤자(1999). 20대 여성의 신체만족도 및 이상형에 관한 연구 -1992년도와 1997년도의 비교-. 한국의류학회지, 23(1), 159-169.
- 정재은 · 이순원(1999). 20대 남성의 실제 체형과 신체 이상형에 관한 연구. 대한인간공학회지, 17(2), 49-63.
- 정혜원 · 김구자(2002). 노년여성의 내의 구매행동-착용 및 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6(5), 737-747.
- 조진숙 · 박상희 · 최정옥(1997). 노인여성의 신체특징에 따른 치수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5), 835-844.
- 함옥상(1985). 한국노인의 의복구성을 위한 체형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황진숙(2000). 노년층 남녀의 의복행동에 대한 신체 이미지와 자아존중의 관계. 한국의류학회지, 24(8), 1187-1196.
- Hoffman, A.(1970). *The daily needs and interests of older people*. Springfield II: Charles C. Thomas.
- Horn, M., & Gurel, L.(1981). *The Second skin*. Boston : Houghton Mifflin.
- Douty, H. I. & Brannon, E. L.(1984). Figure Attractiveness: Male and female Preference for Female Figure. Home Economic Research Journal, 13(2), 122-137.
- Lennon, S. J.(1988). Physical Attractiveness, Age and Body Type. Home Economic Research Journal, 16(3), 196-203.

(2003. 10. 29 접수; 2003. 12. 11 채택)